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올해 황사비상

3정보대대/18의무사지원대 정훈

3면 군관련 소식

어느 미군 주임원사의 전역식

한마디

4,5면 부대 탐방

제9기계화보병연대 1대대



6, 7면 카투사 기고문

미8군 군악대 카투사 생활을 마치며

한진이와 조던의 한국여행기

8면 안녕하세요

추소영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4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네티즌 초청 토론회



카투사 신문 강병삼

19일 서울 용산기지에서 열린 토론회 중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Leon LaPorte 대장(왼쪽)이 한 패널에게 답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네티즌들이 평소에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사안들에 대해, 주한미군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계급의 사령관을 만나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19일 CBS/국민일보/미디어다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Leon LaPorte 대장은 취재진과 패널로 선정된 네티즌들을 용산기지로 초청, 토론회에 응했다.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일반인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하며 자신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

는 기회를 얻었고, 네티즌들은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현직 장성의 입장을 자세히 듣고 토론할 수 있었다.

1 시간 반에 걸친 토론회 동안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물론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미군 범죄 등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을 포함한 여러 질문이 이어졌는데, LaPorte 대장은 각각의 문제에 답하면서 시종 침착하면서도 친근한 태도를 유지하며 상호 신뢰 증진에 애쓰는 모습이었다.

또 사령관은 부임 이후 훈련 등으로 숨진 한미 장병들과 관련 사고로 숨진 이들

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토론이 끝나고 LaPorte 대장은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간다"며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유리(17) 양은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 정말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토론 소감을 밝혔다.

주한미군 공식 한글 홈페이지(www.usfk.or.kr)에 접속하면 토론회 동영상상을 볼 수 있다.

병장 강병삼

최초의 카투사 MLRS 사수 탄생

미 제2사단에서 카투사들은 다양한 직책에서 많은 중요한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다. 1/38 포병대대에서 카투사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지난 여름부터 1/38 포병대대 A중대 박형준 병장이 카투사로서는 최초로 MLRS(Multiple-Launch Rocket System) 사수로서 복무하게 된 것이다.

MLRS는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으로 무한케도 차량 위에 다연장 로켓 발사대가 탑재된 형태를 띄고 있다. MLRS는 지대지(地對地) 로켓과 에이테킴스(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를 발사할 수 있다. 이 차량에 탑승하는 승무원들은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고 60초 이내에 12발의 로켓이나 2발의 에이테킴스를 발사할 수 있다. 미사일의 위력



2사단 공보실 상병 이형일

MLRS 위의 박형준 병장

과 사정거리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강력한 에이테킴스를 발사할 경우, 사정거리는 300km에 달하며 미사일 탄두 내에 950개의 야구공 크기의 M74 보조포탄을 적체하여 200m * 150m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MLRS는 지대지 로켓 및 유도탄 사격체계로서 최장의 사거리, 최강의 파괴력,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춘 화포로 "포병의 꽃"이라고도 불리며, 걸프전시 미군이 운용하여 이라크에 심대한 타격을 끼쳤던



미 육군 자료사진

바, 하늘에서 철비가 내린다 하여 "Steel Rain"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MLRS는 3명의 승무원에 의해 운영되는데, 하사(E-6) 이상의 분대장, NCO인 사수, 사병인 운전병이 한 조가 된다. 카투사의 경우 비취인가, 군면허 등의 문제점 때문에 사수로서나 운전병으로서 MLRS 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수한 카투사들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1/38 포병대대 대장과 지원대장이 합의하여 사수 인가를 받아, 카투사가 MLRS 사수로서 복무하게 되었다. 박형준 병장은 탄약관리병으로 일하다가 그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최초의 MLRS 카투사 사수로서 발탁되었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발탁 이유를 밝힌 박형준 병장은 "최초의 카투사 사수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부담스럽지만 잘 할 자신이 있다"면서 "처음하는 만큼 어렵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보람을 느낀다"고 각오를 밝히며, 카투사 사수가 갖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탄약관리병의 경우 무대 뒤에서 굶은 일을 맡는 역할이라면, MLRS 승무원은 대대

2면에 이어집니다



카투사 신문 염태성

가방을 찾아서

8군본사 장병들이 'Frigid Lightning'이라는 지휘소 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 작전지에 먼저 도착한 짐을 찾고 있다.

軍, 사상 최악 황사 비상

올해 사상 최악의 황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난 20일 환경부의 발표에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단계별 행동요령 등 정부부처의 황사에 대비한 각종 대비책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기상청의 황사경보 발령 수준에 맞춰 현역 및 예비군의 야외훈련 적용 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육군 지침에 따르면 황사경보가 발령되는 미세먼지 농도가 300~500 $\mu\text{g}/\text{m}^3$ (1 m^3 당 미세먼지 무게)일 때는 정상적인 야외 훈련을 실시하되 황사경보수준 확인 체제를 유지하고 황사주의보(500~1000 $\mu\text{g}/\text{m}^3$)가 발령되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야외훈련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1000 $\mu\text{g}/\text{m}^3$ 이상인 황사경보 단계에서는 모든 야외훈련을 실내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황사단계별 대응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군은 정밀반도체가 장착된 무기체계와 공기를 필요로 하는 각종 기동장비, 최첨단 유도무기 등이 황사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고장나는 사태를 미연에 막기 위한 대책으로 황사경보가 발령되면 장비관리 특별점검반을 운용해 긴급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21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행동

지침에 따르면 황사발생 이전에는 실내에 공기 정화기나 가습기를 준비하고 외출 때에는 보호안경과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황사가 일단 발생하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할 경우 마스크와 긴소매 옷을 착용할 것과 렌즈 사용자는 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할 것을 권했다.

또 귀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눈을 깨끗이 씻어 눈물이 원활히 분비되도록 해야 하며, 손과 발 등을 깨끗이 해 모래먼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일 국내 황사 발원지인 내몽골 고원의 혼산다크 사막과 만주지역 커얼친 사막의 강수, 강설량이 지난해 말부터 크게 줄어 올해 황사가 사상 최악을 기록한 2002년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한중일 3국의 기상, 환경전문가들이 참가한 황사국제워크숍에서 한국과 일본 기상청이 중국 사막에 설치한 황사관측망 등을 통해 얻은 각종 관측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최악의 황사가 발생한 2002년에는 일곱 번 발생, 16일간 지속됐으며 이로 인해 초등학교가 집단 휴교하고 항공기 230편이 결항되기도 했다.

국방일보 제공

MLRS gunner

1면에 이어서...

장, 주임상사가 최우선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투사에게 MLRS 사수를 맡긴 것은 그만큼 카투사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최초의 카투사 MLRS 사수로 복무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 카투사들끼리 OJT를 통해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데, OJT 없이 3일간의 수업(Class)만 듣고 바로 훈련을 나가게 되어 모든 것을 혼자서 숙달하느라고 힘들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훈련에 나가면 최신 전자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준 발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소음 때문에 사격지령 라디오로 교신하는 것이 힘들다"고 밝혔다.

"이때까지의 모든 훈련이 실사격을 위해서 이루어진 만큼 실사격훈련을 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대장인 1/38 포병대대의 Haller William 하사는 박형준 병장에 대해 "무엇이든 빨리 배우고 MLRS 사격 실력이 뛰어난 우리 부대의 큰 자산"이라고 평하면서 "탄약관리병으로 일하는 능력있는 카투사를 상병이 되면 MLRS 사수로 발탁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는 각 소대마다 1명씩 총 4명의 카투사 사수를 둘 생각"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박형준 병장이 제대한 후 그의 뒤를 이어 MLRS 사수가 될 1/38 포병대대 A중대 함형길 일병은 "박형준 병장은 자신의 임무를 잘 이해하고 부하들에게 목표를 확실히 제시하고 동기를 유발시키며, 술선수범하여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본받고 싶은 선임병"이라며 "박형준 병장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이지만 카투사들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2사단 공보실 상병 이형일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공판 미국방성 공인 신문임. 주한 미군 인쇄장에서 1회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은 아님. 카투사지는 각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됨.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A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8376/4681임.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서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전자우편 주소는 kangbys@usfk.korea.army.mil임.

- 미8군 사령관
- 중장 찰스 씨 캠프
- 한국군지원단장
- 대령 김덕곤
- 미8군 공보실장
-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 대위 이세희
- 편집장
- 병장 강병삼
- 기자
- 상병 장승모
- 일병 김택현
- 이병 염태성



- Eighth U.S. Army Commander
- Lt. Gen. Charles C. Campbell
-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 Lt. Col. Steven A. Boylan
- Command Information OIC
- Capt. Mary J. Constantino
- Editor
- Sgt. Kang, Byung-sam
- Staff Writers
- Cpl. Jang, Seung-mo
- Pfc. Kim, Taek-hyun
- Pvt. Yum, Tae-sung
- Special Assistant
- Mr. In, Pu-hyun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Eigh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A,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8376/4681.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kangbys@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끝나지 않은 전쟁을 실감케 한 정훈교육



3정보대대 / 18의무사 지원대 제공사진

교전 당시 침몰되었다가 인양된 참수리호 앞에서.

캠프 험프리스의 3정보대대 / 18의무사 지원대는 지난 달 30일 평택에 소재한 해군 2함대로 견학을 갔다. 수요일 오전에 있는 정훈교육을 업무가 끝나는 금요일 오후로 옮겨 색다른 정훈교육을 가진 셈이다. 주도로를 따라 넓은

고도 깔끔하게 펼쳐진 부대 풍경, 그 뒤로 잔잔하고 여유롭게 있는 바다만으로도 병사들에게는 충분한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다. 위령탑에 이르러서 해 교전 당시 상황들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그 앞에 전시되어 있는 침몰되었던 참수리호를 보고 전사한 군인들에게 묵념할 때에는 모두들 숙연한 표정으로 가슴 속에 있는 '애국'이란 글자를 곱씹는 듯 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해군기지 역

사관을 둘러보고 강당에 모여 해군관련 시청각 자료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견학에 참여한 3정보대대 본부중대 이평관 이병은 "주요 공격 무기가 있는 곳과 가장 중요한 조종실을 난사해 무력화시키는 것이 너무도 섬뜩했다"며 두려움

을 금치 못했고 3정보대대 B중대 운상진 병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 국방력이나 군에 대한 신뢰인지, 아니면 막연한 무자각 불감증에서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젊은 세대의 안보의식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501정보여단 3정보대대 일병 김우주



3정보대대 / 18의무사 지원대 제공사진

서해교전 전적비에 묵념하는 장병들

공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DSN 723-6460

E-mail:kangbys@usfk.korea.army.mil

Good bye, CSM Creed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한국을,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한국인을 많이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친근함은 전역 후에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2월 5일 용산 사우스포스트 킬러 필드 하우스에서는 군을 떠나는 8명의 미군을 위한 주한미군사 전역 의장행사가 있었다. 이날 행사가 카투사들을 포함, 한국군 측에게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 데에는 이들 전역자 중 17항공여단 Daniel Creed 전(前) 주임원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사를 찾은 17항공여단 본부중대 지원대장 김지택 소령은 Creed 전 주임원사의 전역에 대해 "그는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는 동안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에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떠나보내니 보배를 잃는 듯한 기분"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Creed 전 주임원사는 이날 한국에서 6년 반 동안의 군복무를 끝으로 30여년의 오랜 군생활을 마무리지었다. 한국에서의 복무 기간 동안 그는 카투사의 부대 생활여건 향상과 한미 양국의 군사 및 문화 교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월에는 용산 카투사 농구대회를 추진하여 성공리에 대회를 마쳤고, 부대의 미군과 카투사들이 대외 활동을 통해 봉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초등학교

와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캠프 험프리스에서 17항공여단 52항공연대 2대대 주임원사로 있는 동안에는 전부대원들이 인근 농촌의 농부들을 도와 추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도 하였다.

"6년 반 동안 카투사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이들이 명석하고 애국심이 투철하며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Creed 전 주임원사는 "이러한 그들이기에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고, 이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다"며 카투사와 함께 한 소감을 밝혔다.

17항공여단 본부중대의 윤종영 상병은 Creed 전 주임원사에 대해 "부대의 카투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항상 관심을 보였고 카투사 가족 초청이나 전역한 카투사들의 모임인 리유니언 데이 등 카투사들을 위해 많은 행사를 열었다"며 "부대의 모든 카투사들이 그를 좋아하고 또 따랐는데,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Creed 전 주임원사의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에 묻어난다. 그의 부인은 현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석사 학위 코스를 밟고 있고, 슬하의 3남 3녀 중 첫째 아들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다. 또한 막내아들은 한국 초등학교를 다니는 등, 자녀들 모두 한국어 구사 능력이 상당히



카투사 신문 장승모

전역식 후 Daniel Creed 전 17항공여단 주임원사(가운데)가 미8군 사령관 Charles Campbell 중장에게 축하받고 있다.

다고 한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들 가족이 우리나라 모 방송 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비추었다는 것. 지난 2000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모 방송 프로그램 코너인 '량현량하와 메리의 작은 약속'에서의 메리가 바로 그의 막내딸이다.

Creed 전 주임원사는 이에 대해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었는데 몇 년 전 막내딸과 함께 온 가족이 TV에 출연하였던 것이 가장 재미있었던 기억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전역 후 그는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이라크를 찾을 예정이다. 그는 "이제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이라크 사회의 재건을 위해 힘쓰고 싶다. 그곳 어린이들

의 교육을 위해 학교 등을 지으며 지낼 계획"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전역하는 소감에 대한 질문에 그는 한동안 감정이 북받쳐 말을 꺼내지 못했다. 오랜 동안 몸을 담았던 군대이기에 이를 떠나는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듯했다.

"무사히 전역하게 되어 기쁜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오랜 군생활을 마치게 되어 아쉬움이 남습

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물러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후회 없는 군생활을 한 것 같아 기쁩니다. 내게 많은 경험을 제공해준 군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투사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자면, 다른 문화에서 자란 미군들과 더 친해지길 바랍니다. 많은 미군들은 한국의 문화와 오랜 역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참을성을 갖고 이들을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이들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상병 장승모

카투사들의 한마디

군생활 중 내가 고치고 싶은 점



1/9 보병대대 C중대 상병 오승관

사회에 있을 때 유약했던 마음을 보다 강인하게 만들기 위해 전투병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날짜를 약 7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까지 부대에 있는 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 나약했던 내 자신을 잘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게을러진 생활태도를 고쳐 제대 후 멋진 남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1/9 보병대대 본부중대 상병 이경수

이제 군생활도 반 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기보다는 하루하루 보내는데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은 업무에 대한 준비도 조금 하고, 크게는 제 인생의 미래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게 뭐야~' 하는 생활 태도를 고치고,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1/9 보병대대 B중대 일병 김윤식

군대에 들어와서 생각한 몇 가지 고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어느 상황에서든 침착할 수 있는 냉정함을 지니고 싶습니다. 쉽게 달구어지고 쉽게 식는, 그리고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쉽게 끝내고 싶은 마음가짐을 버리고, 천천히 꾸준히 노력하는 거북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대하는 그 날까지 조금 더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B중대 선, 후임병들과 지내고 싶고, 따뜻한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 보병대대 A중대 병장 천상민

개인적으로는 군생활이라는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내대한 생활습관을 고치고 싶습니다. 선임병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유부단한 모습이 아닌, 리더로서의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는 모습을 갖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군과 카투사 간의 관계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카투사 신문 김택현



제9기계화보병연대 1대대

1st Battalion, 9th Mechanized Infantry Regiment

겨울의 막바지에 다다른 어느 날, 첫 부대탐방 취재라는 부담과 기대를 함께 안고 방문한 부대는 높은 기상을 지닌 전투병들이 근무하는 제 9기계화보병연대 1대대(1st Battalion, 9th Mechanized Infantry Regiment: 이하 1/9보병대대)이다. 눈이 오던 아침 날씨와는 다르게 캠프 호비에 도착하였을 때의 날씨와 기자의 방문을 알기라도 하였는지 맑게 개어있었다.

"Keep Up The Fire!"

1890년에 9보병연대를 지휘하던 Emerson Liscum 대령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의화단을 진압하기 위해 중국으로 파견되어 전쟁을 하던 중 의화단의 공격에 쓰러지면서 외친 이 말이 현재 1/9보병대대의 부대 구호가 되었으며, 이 당시의 대단한 활약으로 인하여 이 부대는 'Manchu'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칭나라 황제로부터 얻게 되었고 부대의 상징이 되었다.

현재 200년이 넘는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부대는 1798년 1월에 Maryland에서 지원자로 구성된 민병대 중심으로 창설, 1812년에는 정규군으로 결성되었고 1847년 멕시코 전쟁시 재편되었다. 9보병 A중대(현 9보병 1대대)로 조직이 정비된 것은 1855년이요 현재에는 미 2사단 2여단에 속해있다. (503, 506보병대대와 같은 소속이며 9보병 2대대는 72전차 1.2대대와 같이 1여단에 속해 있다. 9보병 1대대와 2대대는 소속은 다르지만 그 임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인디언 전쟁, 남북 전쟁, 스페인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였으며 한국전쟁에도 참가한 9보

병 1대대는 45개의 군사작전 깃발과 16개의 훈장, 5개의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19개 국회 명예훈장 중에서 10개를 차지하고 있어 병사들의 영웅적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의 전방군 전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9보병 1대대는 브래들리(M2A2) 장갑차를 주력기로 하는 부대로서 훈련이 없는 평시에는 개인정비 및 장갑차를 정비하며 항상 부대 내에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전장에 투입될 수 있게 준비한다고 한다.

9보병 1대대는 총 5개의 중대-본부 중대, A, B, C, D 중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투사는 각 중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다른 부대와 달리, 전투부대의 특성상 본부

중대는 본부소대, 통신소대, 정비소대, 정찰소대, 박격포 소대, 지원소대, 의무소대, 작전과, 인사과, 정보과, 분석과 등으로 되어 있으며 예하 중대는 본부소대와 1, 2, 3소대인 4개의 소대로 이루어져 있다. 본부소대를 제외한 각 소대들은 다시 dismount(수송병력=보병)로 구성된 2개의 squad와 mount(승무원)로 구성된 2개의 section으로 되어있으며 한 소대에는 4대의 브래들리 장갑차가 있다. 각각의 dismount squad와 mount section이 합쳐서 2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담당한다.

브래들리 장갑차에 탑승하는 승무원으로는 장갑차 지휘관과 운전병 그리고 포수가 있는데, 운전상의 제약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 카투사들은 포수 외에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포수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미군들도 포수의 경우는 특별히 우

수한 미군들만 선발한다고 한다. 특히 이곳 카투사들은 포수가 많으며 빠르면 전 입을 오자마자 교육을 받은 후 포수를 한다고 하여 카투사들의 우수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1/9보병대대의 지원대장을 맡고 있는 한오성 상사는 부대 카투사들에 대한 자량을 아끼지 않았다.

"이곳 카투사들은 체력은 물론이고 영어 실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미군들로부터 '잘한다, 열심히 한다, 카투사가 우수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본인들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일반 보병이 아닌 기계화 보병이기에 위험한 임무들을 많이 수행하게 되는데 최근 3, 4년동안 안전 사고나 대민 사고 등 어떠한 사고 없이 부대를 이어 왔습니다. 또한, 작년에 미 2사단 지역에서 3개 대대가 우수 부대로 선정되었는데, 1/9보병대대도 그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곳 카투사들은 자신의 부대와 업무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1/9보병대대 카투사들이 매년 참가하는 주요 훈련으로는 장갑차 포 사격과 보병훈련을 하는 Gunnery, 레이저 감식 장치를 내장한 장비를 갖고 실제 전쟁과 같이하는 훈련인 ARTEP(Army Training Evaluation program)이 있으며 이 외에도 각 예하 중대가 한달씩 교대로 전방의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을 경비하는 임무와 전쟁 발발 시 상황훈련을 하는 JSA mission을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한다고 한다. 이러한 훈련들로 인하여 이들이 야전에서 생활을 하는 날을 합치면 일년에 약 150일 정도가 된다고 한다.

주로 승무원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Gunnery 훈련에서는 그해의 탑건(Top Gun)을 뽑는데, 1T(난이도에 따른 훈련의 단계)부터 가장 어려운 10T까지의 목표물을 맞추어 점수들을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포수가 그 훈련의 탑건이 된다. 주로 점수가 높은 9T나 10T에서 카투사들이 우수한 성적을 보이며 2002년과 2003년에는 2년 연속 카투사가 탑건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다. 작년에 탑건의 영예를 누렸던 B중대 선임병장 박준형 병장은 "작년 2월 중대에서



카투사 신문 김택현



카투사 신문 김택현



카투사 신문 김택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다음에는 더 잘 쓸 수 있을까?' 라는 기대와 부담감이 있었지만, 소대하사가 나를 믿고 다시 포수를 시켜주어 제일 처음으로 사격을 하였고 답건을 하게 되었다"며 "그 당시 2등과 3등도 모두 카투사이어서 다시 한번 미군들에게 카투사의 우수성을 보여준 기회가 되어 기뻐다"고 당시의 수상 소감을 밝혔다.

우수보병기장인 EIB는 보병들 중에서도 자격조건을 갖춘 우수한 군인들만이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기장이다. 우수보병기장을 획득하려면 보병이 갖추어야 될 34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각 과정에서는 2번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 과정 중에서 3가지 이상에서

No Go를 받게 되면 실격이라고 한다. 이 우수보병기장의 기간은 교육기간 3일, 모의시험 3일과 시험 3일로 총 9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우수보병기장 또한 1/9보병대대와 506보병대대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카투사들의 경우 우수보병기장 코스에 참가하는 미군들보다 2배 이상 높은 확률로 획득하며 1/9보병대대의 합격률은 75%를 자랑한다.

이외에도 부대의 상징인 '만주 행군' (Manchu Mile)이 있다. 1/9 보병대대 부대원들은 1년에 2번 25마일 (약 40km) 행군을 하는데 이것은 1900

년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타쿠만에서 텐진까지 실시했던 힘든 행군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카투사들도 전역을 할 때까지 4번 정도 만주 행군을 하게 되는데 이 7-8 시간이 걸리는 행군을 낙오하지 않고 귀환하면 증서와 이를 기념하는 벨트 버클을 받는다고 한다.

1/9 보병대대의 PT 점수는 중대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대 평균이 약 280점이며 대부분의 부대원들이 PT 마스터이기 때문에 PT 마스터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PT 마스터 패치를 받아도 이를 PT 복에 다는 부대원은 없다고 한다.

이 곳의 카투사들은 미군과 함께 힘든 훈련을 하면서 서로 어려운 일을 같이 겪고 부딪히고 헤쳐나가며 미군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와 더불어 매주 목요일 아침과 오후에 두 번씩 진행되는 '한국어 교실'을 통해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이 한국어 수업의 강사는 카투사들이 순서를 정하여 매주 돌아가면서 행해지고 있다. 오전에 교육하는 반은 한국어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미군을 위주로 부대 밖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회화나 부대 내에서 자주 쓰는 군사 용어들을 한국말로 교육하고 있으며 오후에 하는

반에서는 미군들의 요청에 의해 한국말을 문법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더욱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나누어진다.

"한국어 교실이 작년 7월부터 시작하여 이제 막 100시간을 넘겼다"는 A 중대 송재구 병장은 "미군들이 한국 문화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카투사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낀다"며 한국어 교실 이후의 미군들의 모습에 대해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군들이 한국 말을 걸며 접근해 올 때에는 군대 밖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애국심을 느끼게 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어 교실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9 보병대대에서 카투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PLL (Prescribed Load List) 에서 근무하는 본부중대 소속 Anthony Mayse 병장은 부서 내에서 카투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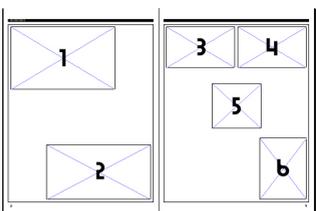
"이 곳에서 일하는 카투사는 미군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며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카투사들에 만족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여주었으면 좋겠고 우리 미군들은 1/9 보병대대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카투사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1/9 보병대대의 또다른 자랑 중에 하나는 현재 2사단의 태권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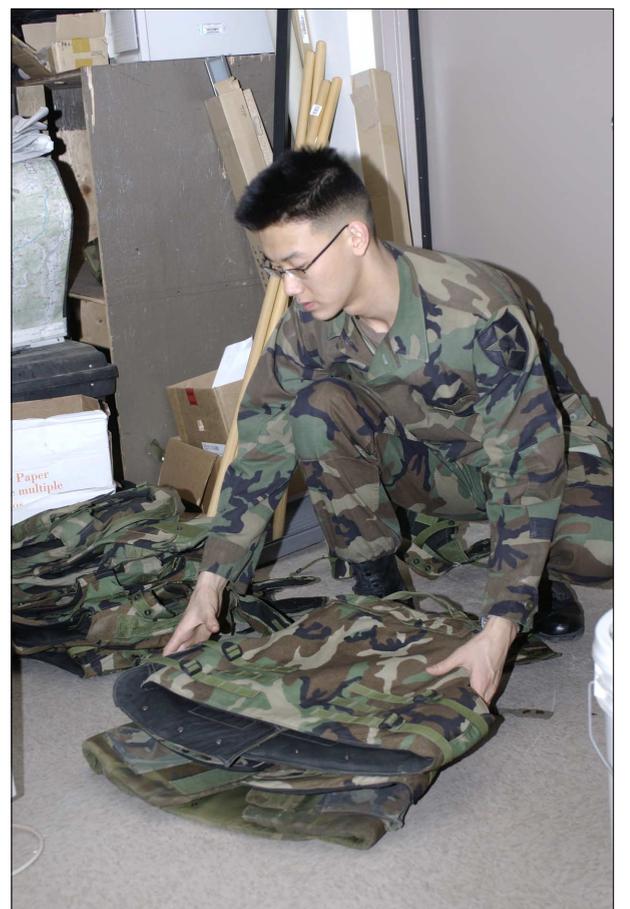
팀으로 발탁되어 'fighting team'에 속해 있는 C중대의 정대현 상병을 들 수 있다. 그는 부대에서 태권도 PT를 하다가 2사단 태권도 대표팀에 뽑히게 되었으며 올해 미국에서 열리는 태권도 2004 U.S. 오픈에 2사단 대표로 나가는 5명 중 한 명이 되는 영광을 안았다. 2004 U.S. 오픈을 위해 출국을 앞둔 정대현 상병은 "태권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큰 욕심은 없고 열심히 훈련하고 배운 것만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사단을 대표하는 부대 중 하나인 제 9기계화보병연대 1대대를 취재한다는 기대에 카메라를 메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만 같았다. 전투병이라는 딱딱한 이미지와는 달리 선임병과 후임병들이 서로 잘 어울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항상 변화를 추구하며 맡은 일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튼튼한 국방력은 유지될 것이다.

일병 김택현



1. 브래들리 장갑차에서 C중대 Jason Bent 이병에게 포탄을 넘겨주고 있는 C중대 오승관 상병
2. 브래들리 장갑차 25mm포의 영점(Boresight)을 잡고있는 C중대 김형국 상병(왼쪽)과 B중대 장경석 상병
3. PLL(Prescribed Load List)에서 부품 정리를 하고 있는 본부중대 Anthony Mayse 병장(왼쪽)과 본부중대 정원석 상병
4. M240C 기관총의 분해& 조립 능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 B중대 박준형 병장과 시간체크를 하고 있는 C중대 Stephen Knight 병장
5. 일명 'Manchu Bell'로 불리며 중국의 의화단 운동을 진압 후 그 기념으로 그곳의 교회에서 가지고 왔다고 한다.
6. 보급실 안에서 방탄 조끼를 정리하고 있는 본부중대 심민규 일병



카투사 신문 김택현

전세계 6천만 독자의 인생을 바꾼 위대한 베스트셀러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 두번째 이야기

선물

The Present
Spencer Johnson

BESTSELLER

선물

스펜서 존슨 / 중앙 M&B

삶이 힘겨울 때마다 우리는 늘 뭔가 비범하고 독특한 해법을 찾곤 하지만, 소중한 것은 언제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것들이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현재'라는 평범한 선물이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 책은 소박한 이야기 한 편으로 일깨워준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통해 삶에 대한 혁신적인 시각을 제시했던 스펜서 존슨 박사는 오늘 하루 속에 감춰진 위대한 성공의 비밀을 들려준다.



WEBSITE

편집

www.funshop.co.kr

일명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 가게'인 편집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이트이다. 편집에서는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았거나, 소개는 되었으나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19세기 영국에서 유행했던 퍼즐부터 아직 테스트 중인 꿈의 로봇까지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향수와 진보 사이의 열정을 찾게 해주는 사이트이다.

카투사 기고문

내 인생 최고의 선택과 기회

- 미8군 군악대 카투사 생활을 마치며 (1)

이번 호부터 본지는 얼마 전 전역한 02-01기 최성남 예비역병장의 기고문을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군악대에서 근무한 선배 카투사의 경험담과 유용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공사진

미8군 군악대 최성남 병장(왼쪽)과 동료 Hicks 병장이 작년 7월 KBS TV의 '청춘 신고합니다 - 한미연합사 편'에 출연하여 'We go together'를 부르고 있다.

연기 어려운 것은 시기요, 놓치기 쉬운 것은 기회이다. - 조광조

조광조는 조선시대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사회개혁가였다. 그러나 그는 위와 같은 명언을 남겼지만, 실패한 개혁가라는 불행한 수식어를 달고 있다. 하지만 나는 카투사 생활이 내 인생에 있어 최고의 시기이자 기회라는 사실을 안 뒤로부터 실패한 카투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 카투사신문을 통해 여러 카투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군생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기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밴드 카투사의 역할과 임무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글을 구성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다른 카투사들에게 들은 가장 많은 질문은 밴드에도 카투사가 근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근무한 미8군 군악대는 미8군 병력사령부 소속의 한 중대이다. 50명 이상의 미군병사가 근무하고 있고, 독자적인 행정계(S-1), 작전계(S-2), 훈련계(S-3), 보급계(S-4) 등을 갖고 있으며 각 부서에 1명씩 4명의 카투사가 근무하고 있다. 4명의 카투사 중 두 명은 나처럼 KTA에서 오디션을 통해 가수로 선발된 경우이고, 나머지 2명은 직접선발이 아니기에 다른 카투사 보직 배치와 마찬가지로 추천을 통해 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다른 부대와와 독특한 차이점은 이런 사무실 업무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밴드에게 있어 가장 주된 업무는 각종 부대 행사지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콘서트 개최이다. 그래서 밴드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은 개인별, 섹션별 연주 연습이고, 틈틈이 시간이 생길 때마다 사무실 업무를 하게 된다. 물론 오디션을 보지 않았지만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군악대장님의 허락을 받아 연주에 참석할 수 있다. 나는 행정계(S-1) 카투사로 보직을 받았으며, 나

역시 선임 카투사들과 마찬가지로 사무실 근무를 하며 가수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때는 밴드의 연습과 행사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밴드 카투사에게는 그런 형식적 업무 분장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서로 서로 도와가며 서로의 빈 공백을 메워야 하기에 모든 부서의 일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가수로 보직을 받지 않았더라도 노래를 잘 한다면 콘서트



제공사진

작년 11월 주한미군 사령관 주최 만찬에서 공연하는 모습

나 파티장에서 노래를 하거나 사회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지난 2년간 밴드와 함께 대민 공연 40여회, 한미연합사 및 미8군 사령관 주최 만찬 60여회를 소화해 내었다. 사실상 나의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오후 5시 이후였고, 다른 카투사들이 쉬는 휴일이나 명절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근무시간대에 큰 불만이 없었다. 밴드는 그렇게 밤 무대(?)를 주로 하는 나에게 평일에 쉴 수 있는 배려를 잘 해주었고, 나 역시 가수로서의 삶을 무척이나 즐겼기 때문이다. 사실 밴드의 대민공연은 그 출발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고도의 상징성과 높은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 대개 한국 사람들은 8군 군악대를 초청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공연을 항상 흔쾌히 수락한다. 아니, 우리는 공연요청에 대해 감사한 마음까지 갖고 있다. 공연장만 제공해주면 우리는 어디라도 우리 돈을 투자해서까지 공연한다. 단지 공연 준비

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명분만 분명히 제시해주면 되는 일이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8군 군악대의 사명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한미우호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루어진 공연은 공연을 요청한 측의 요구에 따라 곡을 편성하게 되고 많은 연습과 리허설을 통해 공연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카투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며 절대적이다. 공연 전까지 이루어지는 수많은 연락을 중간에서 매개해야 하며, 세세한 프로그램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때로는 미측의 입장을 때로는 한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전 조율작업은 결코 미국 병사나 한국측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분야이다. 왜냐하면, 언어적 장벽을 넘어 밴드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측과 한국측에서 요구하는 미묘한 내용을 적절히 수용하고 결정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조정능력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에 잘 모르는 외부인들은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개인적으로 같이 근무했던 작전계의 문수민 병장의 능력은 참으로 탁월했다. 사실 그와 같은 카투사가 밴드에 있었기에 밴드는 늘 대민공연에 100% 완벽한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준비된 대민공연에서 카투사는 또 다른 절대적인 일을 하게 된다. 사회를 보는 것이다. 미군들이 하고 싶은 곡 소개를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정감 있게 설명하면 이내 청중들은 친근함을 느낀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지휘자는 청중을 향해 지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휘봉을 맡기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좋은 친구라는 고도의 상징적 메시지를 청중들 가슴속에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무료 공연의 효과는 일부 미군들 잘못이나 편중된 보도로 인해 실추된 미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데서 100% 발휘된다. 나는 공연이 끝난 후 이런 얘기를 한국 국민들로부터 많이 들었다. 정말 공연이 훌륭했고, 미군들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어 공연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공연이 끝난 후 그냥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한다. 이 과정에서 역시 카투사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어가 서툰 한국인들을 위해 또한 한국말이 서툰 미군을 위해 통역을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밴드 공연의 처음부터 끝까지 카투사는 없어서 안 될 존재들인 것이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카투사 기고문

한진이와 조던의 한국여행기

6. 우리가 선 이 곳과 우리가 사는 이 시간 : 현대 한국사회 읽어내기

- 중국의 고구려역사 왜곡, 독도영유권 분쟁, 부안 핵폐기장 건설 논란, 고령화사회로의 이행, 주5일 근무제와 고속전철 KTX 개통

'지금 한국사회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마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언론계, 종교계, 학계, 재계, 정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모두 다를 것이고, 여러 관점과 첨예한 갈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름대로의 비판적인 준거의 틀과 주체적인 판단기준은 꼭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난 조던과의 한국여행 중에 보고 느꼈던 점들을 토대로 역사, 지리, 외교적 이슈와 사회정책적인 시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볼 생각이다.

먼저 2003년에 가장 우리를 놀라게 했던 역사계의 이슈는 중국의 고구려역사 왜곡(동북공정)이 아니었을까. 아직 사회주의라는 죽(竹)의 장막에 가려 어떻게, 얼마만큼 역사왜곡이 진행되고 있는지 실체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 가지 눈에 띄는 증거들은 광개토태왕비에 대한 중국정부의 과잉배타적인 관리와 지난 2월 중국이 고구려의 도읍지였던 졸본성 환린(桓仁)과 국내성 지안(集安)의 고구려 유적들을 정비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한다는 뉴스들이다. 아마도 이보다 훨씬 더 크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간의 이념전쟁으로 힘을 쏟고있는 동안 거대한 중국대륙은 서서히 새로운 패권주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드넓은 만주벌판과 간도지방은 분명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와 발해가 그들의 꿈을 펼쳤던 터전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왜곡과 진실의 조작은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리적 영토분쟁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에 거주한 이래 함께해 온 바다 동해, 그 한가운데에 186㎡의 작은 땅 독도는 일본과의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너무나 명백하게도 독도는 우리땅이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지시대에 위조된 여러 역사서들에서 그 근거와 명분을 만들어가고 있다. 매년 국회의원 몇몇이 망언을 일삼고, 때때로 일본 순시선의 출현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전 나는 조던에게 어렵게 구한 독도우표를 한 장 보여주었다. 어찌보면 평범한 섬의 생태를 소개한 우표 4종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은 우표 한장에 그치지않고, 유구한 우리 역사와 함께한, 많은 이들의 숨결이 녹아든 영혼의 땅이 담긴 것이었다. 한국우정사업본부는 우리나라 주변 3,4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의 생태계를 소개하고 그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올 1월부터 시리즈 우표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그 첫번째 묶음이 바로 '독도의 자연'인 것이다.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온 조던에게 이러한 작은 섬 하나가 왜 그리 중요한가를 알리는 데 꽤나 시간이 걸렸



우리의 땅 독도가 우리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질 때, 우리는 그 곳을 잃게 되는 것이다.

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적잖이 알고 있는 조던은 어느정도 이해하는 것 같았다. 독도의 영유권 분쟁은 단순한 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우리 어업활동의 영역, 그리고 전 국민적 정서와 우리 역사 전체와도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때 우리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지금 세계지도를 보면 동해를 'Sea of Japan'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또한 결코 단순히 넘겨야 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역사는 우리 가슴속에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온 이들의 기억 속에서 존재한다. 과거로부터 현재를 흘러 미래로 향하는 우리의 소중한 정신문화적 발자취이기에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하며, 위의 문제들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설악산을 찾은 같은 중대의 이재실 씨, 허영길 상병, 조던 병장, 이한진 병장, 어득수 씨(한국 군무원)

다음으로 생각해볼 측면은 요즘 우리 사회의 주요 정책들이다. 한 나라,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틀이다. 왜냐하면 모든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그 사회가 어떤 사상과 시스템으로 돌아가느냐가 그 사회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에너지 문제부터 살펴보자. 작년에 많은 이들이 방사능 위험표시가 새겨진 노란색 옷을 입고 전경들과 싸우는 장면을 매 뉴스에서 보았던 조던은 그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 문제인가를 전부 느끼지는 못했을 것이다. 바로 부안의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었다. 그 누구도 잘못이 아니고, 그 누구를 원망할 문제도 아니었다. 그것은 전국민이 처한 생존과도 직결되는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중대한 선택을 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율이 겨우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중동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은 물론 에너지 공급의 다양한 루트를 모색해야 하며, 미래의 대체에너지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우리 사회도 이제 꽤나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사회전체가 복지에 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이다. 조던은 외국인인 자신이 봐도 이미 이러한 경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며, 미국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여러가지 현황을 말해주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진행중인 연금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실행, 실버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확대와 개선의 시급함에 우리들은 대화를 통해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힘이 덩치 큰 국가행정력의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완해나가며 우리 사회를 다원화하고, 윤택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즉, 사회의 가치가 다양해지며 우리는 그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건축과 시설에 안전과 환경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또한 인권신장과 자원봉사의 힘이 가져오는 파급력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조던과 나의 대화처럼 우리 사회도 세계와 원활히 소통하고, 열린마음으로 좋은 면들은 받아들이며 비판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년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주5일 근무제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에도 적잖은 파장을 주고 있는 이 시책은 레저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은 물론 웰빙족의 대두와도 큰 관련이 있다. 자유시간 확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은 레포츠, 디지털체험, 테마여행 등에 수요를 확대시키며,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스포츠가 생활화되고 있다. 또한 고속전철 KTX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면 물류수송 및 유통이 원활해지고,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바지함은 물론 관광사업에도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것이다. 한편 가족주의 강화도 또 하나의 측면인데, 핵가족화의 진전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족단위의 주말 스케줄을 구상하여 종합리조트, 주말 농원 등으로 가족이 함께 하는 스포츠 클럽이나 취미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일련의 모든 변화들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전환기에 선 우리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1통신여단 501통신중대 병장 이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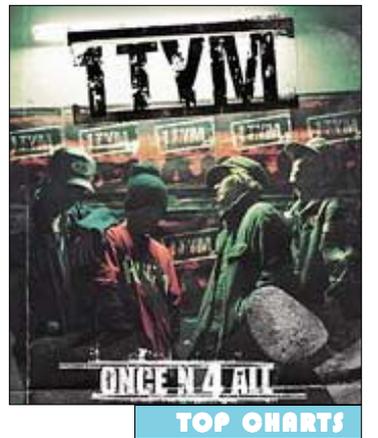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감독: 소피아 코플라

주연: 빌 머레이, 스칼렛 요한슨

할리우드 영화배우인 밥 해리스는 광고 촬영차 일본을 방문했지만, 일본의 낯선 환경에 단절과 소외감을 느낀다. 샬롯 역시 남편을 따라 일본으로 여행을 왔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쉽게 안정을 찾지 못한다. 갑자기 인생의 길을 잃고 가슴속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만 남은 밥과 샬롯. 호텔 바에서 마주친 그들은 서로의 모습 속에서 자신에게 숨겨진 외로움을 발견하고, 묘하게 이끌리게 된다.



TOP CHARTS

Hot 뜨거

원타임

2. 광화문 연가/이수영
3.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Tei
4. 그게 정말이니/장나라
5. 그런 날이 오겠죠/신승훈
6. 로보트/서태지
7. 오래오래/바이브
8. 어쩌면/Buzz
9. 천사/서영은
10. I am missing you/휘성
11. 해바라기/박상민
12. 그대는 눈물겹다/M.C the max
13. 갈색머리/윤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온 그녀

추소영

다가오는 계절을 예고하듯 따스한 햇살이 가시지 않은 추위를 녹여주던 어느 날, 추소영씨와의 인터뷰가 있는 수원 드라마 제작 센터로 향했다. 약간의 휴식기간을 가진 후에 방송에 재기하여서인지 그녀는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기자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한결 포근해진 날씨 덕에 야외촬영을 할 수 있어서 그녀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는 듯 하였고, 촬영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그녀의 바람대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그녀의 모습을 계속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추소영이고요, 1981년 1월 25일생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기억하기 쉽도록 크리스마스 한달 후라고 말을 하곤 하지요.

-데뷔하게 된 계기

어릴 때부터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우연치 않게 고등학교 때 텔레비전을 무심히 보다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모델학원에 등록했어요. 그 후 모델 수업을 받고 '에폴'이라는 잡지의 모델로 활동을 하다가 매니저 분을 만나고 방송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데뷔한 드라마는 1999년에 방영된 '학교 2'라는 드라마예요.

-최근 근황

지금은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드라마에 출연중이고요, 간간히 쇼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있어요.

-학창시절에는 어떠한 학생이였는지

어릴 때부터 매우 얌전한 아이였어요. 학교 다닐 때에도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내성적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예능 쪽에 관심이 있어서 발레를 했었는데, 그 경험이 지금의 방송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취미나 특기가 있다면

촬영이 없는 쉬는 시간에는 비디오 게임을 즐겨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 즐겨 하는 게임은 '사일런트 힐 3'이라는 게임이에요. 춤추는 것도 좋아해서 재즈댄스를 좀 배우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기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쉬는 동안 4개월 정도 요가를 배웠는데, 요즘도 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연예인은

개인적으로 이미숙 선배님을 매우 존경해요.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카리스마를 가장 닮고 싶어요. 외국 배우들 중에서는 개성이 강

한 연기를 하는 케빈 베이컨을 좋아하고요, 중국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금성무도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기억에 남는 팬으로부터의 선물이나 편지는

작년 생일 때였는데, 팬들이 돈을 모아서 강아지 한마리를 선물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장염에 걸려 있어서 한 달도 못되어서 죽어버렸어요. 가장 큰 선물이었고,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또 저희 홈페이지에 글을 자주 쓰시는 군인이 한 분 있어요. 그 분이 어느 날 '누나, 저 탈영했어요.'라는 글을 남겨서 매우 놀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휴가를 나온 것이어서, 황당하면서도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미래의 자기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일단 제 목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의 방송 일을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해서 열심히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천생연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개성적인 모습으로 많은 인기를 얻으셨는데, 촬영 중에 느낀 점이나 재미있었던 점은

일단은 제가 데뷔한지 4년 만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도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프로그램이에요. 이 방송을 하면서 연기가 아닌, 가수 등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재미있었어요. 특히 김홍수씨와는 그 때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같이 드라마를 찍기 때문에 정말 친해졌고요, 촬영하는 내내 워낙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실감났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최고의 쇼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 출연중인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드라마에 임하는 각오는

이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드라마와는 달리 어머니가 주인공이에요. 사랑스럽고 귀여운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사가 골고루 들어간 드라마거든요. 마음 아픈 부분도 있고 재미있는 부분도 많은, 복합적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는 제가 거의 1년 만에 하는 것이어서 저에게는 매우 뜻 깊은 경험이고, 연기의 베테랑이신 선배님들도 많이 출연하시기 때문에 잘해야겠다는 부담감도 들어요.

-'꽃보다 아름다워'에서의 '지니'역이 본인의 실제 성격과 비슷한지

물론 제 성격과 100% 같을 수는 없겠지만, 털털하고 보이시한 성격 등이 저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 출연 계획은 없는지

아직은 영화출연 계획은 없어요. 조금 더 드라마를 통해 경험을 쌓은 후에 도전하고 싶어요.

-앞으로 연기하고 싶은 캐릭터는

저는 연기에 임하면서 캐릭터에 한정을 두지 않는 편이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든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이번 발렌타인 데이에 초콜릿은 많이 주고받았는지

발렌타인 데이는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주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화이트 데이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웃음). 이번 발렌타인 데이 때에도 친구들이나 스태프들에게 초콜릿을 많이 돌렸어요.

-군인이 멋있어 보일 때

헌병들이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부동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친구가 군인이라면 해주고 싶은 것

아무래도 편지를 많이 쓸 것 같아요. 군대 안에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할 것 같으니까,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라든지 사회가 들



프로필

생년월일: 1981년 1월 25일
키: 173 cm 몸무게: 54 kg
취미: 영화 감상, 게임
특기: 재즈 댄스, 요가

아가는 이야기 등을 편지에 많이 쓸 것 같아요.

-자신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저의 가장 큰 매력은 편안함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팬들도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누나, 누나는 옆집에 사는 누나 같아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상형을 설명하자면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저보다 키가 커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다시 생각해 보니까 키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성격 좋고 웃어른도 공경할 줄 아는, 자기 진취적인 사람이 좋아요.

-카투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뭔지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카투사들에게는 일반 군인들에게는 없는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군인들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군인들이 다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계를 잘 조정하여야 하는 분들이니까 특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서 여러가지 문제를 마찰 없이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